

# reliure royal 16세기 왕가의 제본

## 1550년경. 앙리2세(Henri II)의 책.

앙리 2세의 애절한 사랑과 낭만이 느껴지는 책

● 가치 있는 책을 아름답게, 오랫동안 보존코자 시작된 예.술.제.본. ● <출판저널>은 텍스트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책의 미적 가치와 보존에 대한 관심 확대를 반영하고 이를 권하는 의미에서 예술제본가 백.순.덕, 씨로부터 다양한 예술제본서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

백순덕 | 렉토베르소(www.rectoverso.co.kr)대표

16세기 프랑스에는 널리 알려진 사랑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국왕이었던 앙리2세와 그가 사랑하는 정부 디안 드 프와티에(Diane de Poitiers)에 관한 것입니다. 19세의 앙리가 만난 디안 드 프와티에는 앙리보다 19세나 연상이었으며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며 앙리의 부인인 카트린 드 메디시스(Catherine de Médicis)를 누르고 막강한 실력을 행사합니다. 왕비 카트린이 26여 년 간의 궁정생활을 떠돌림과 고통 속에서 보내도록 온갖 계락을 일삼는가 하면 국정에도 직접 간섭, 당시 프랑스의 정치를 휘두르는 권력을 갖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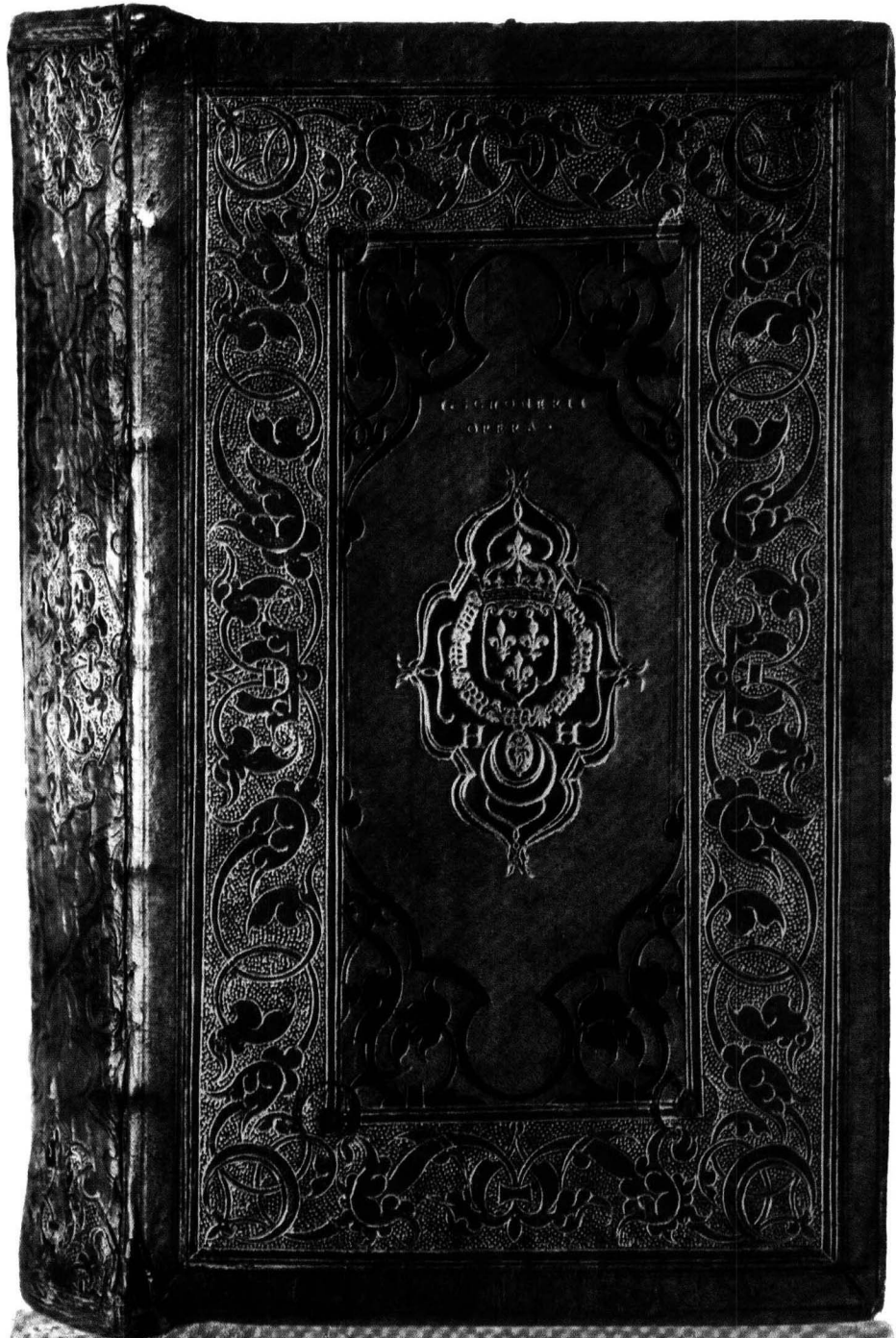
1559년, 카트린을 무시하고 30여 년을 정부인 디안에게 빠져 살아온 앙리2세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사라졌고 카트린은 섭정 여왕으로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나 카트린은 디안이 그동안 심어놓은 반카트린 세력, 구·신교 종교갈등 등 심한 정치적 압력을 받게 됩니다. 카트린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연적이며 악녀였겠지만 앙리2세에게는 죽는 순간까지 그리움의 대상이었던 여인. 그녀는 바로 디안 드 프와티에였습니다.

16세기는 책의 황금기로 불리워집니다. 그 중에서도 왕가의 책들은, 왕들의 후원과 관심으로 예술제본에도 큰 활력을 주게 됩니

다. 프랑스와1세(Francois I), 앙리2세(Henri II), 앙리3세, 앙리4세 등은 예술제본을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그 부흥에 앞장선 애서가들이었습니다.

위의 책은 앙리2세의 왕가의 책(reliure royal)입니다.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으로 장정되었으며 금박가의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책이지요. 왕가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책 가운데 부분에는 프랑스 왕가의 가문家紋인 백합(fleur de lys)이 장식되어 있고, 아래쪽엔 앙리2세를 뜻하는 'H'를 사이에 두고 그 밑에 디안 드 프와티에를 상징하는 초승달 문양이 놓여 있습니다. 세기의 사랑을 과시하듯 책의 표지에조차 연인을 상징화해 넣은 앙리2세는 사랑에 관한 한 꽤 낭만적이었나 봅니다.(이 책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책 중에는 때로는 'HC' (Henri II + Catherine de Médicis), 또는 'HD' (Henri II + Diane de Poitiers)라는 이니셜이 장식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왕가의 제본은 시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왕의 문장이나 상징, 각종 당초무늬, 백합(fleur de lys), 왕의 이니셜, 화려한 금박, 모자이크 등을 왕의 업적이나 권위를 기록한 책 내용에 알맞게 온갖 장식적인 요소들로 표지장정에 등장시키곤 합니다. **▶▶**



( reliure royal · 16세기 왕가의 세본 · 1550년경 앙리2세(Henri II)의 책. )